

## 낙농산업 붕괴를 부채질하는 우유 끼워팔기 즉각 중단하라!

1. 미래 한국낙농을 이끌어 가야할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도를 넘어선 우유 끼워팔기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와 함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한국낙농 사수를 위해 우유 끼워팔기 근절에 적극 앞장 설 것을 천명한다!

2. 사료값 폭등으로 현장 낙농가의 고통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FTA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 속에 수입 유제품의 범람으로 우리우유의 입지는 날로 위축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유통점에서의 끼워팔기와 미끼 상품, 우유 PB제품 판매마저 더해져 우유의 가치하락은 물론 낙농산업 붕괴를 부채질하고 있다.

3. 낙농산업의 기반유지와 농가 생존권 보호를 위해 우유 끼워팔기는 명백히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대형 유통업체의 강요와 유통체간 출혈경쟁이 맞물려 끼워팔기가 고착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유통체 경영손실은 농가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우유의 공급 기반을 붕괴시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4. 이대로 가다간 한국낙농은 없다.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우유 끼워팔기 문제를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낙농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유통점에서의 끼워팔기를 비롯한 덤핑판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우유 끼워팔기, 미끼 상품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

5.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작금의 사태를 위기로 간주한다. 이에 우리는 유통체와대형유통점에 끼워팔기 중단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철저한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우유 끼워팔기 근절을 위한 제재조치를 즉각 강구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적으로 묵살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 3. 11(화)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